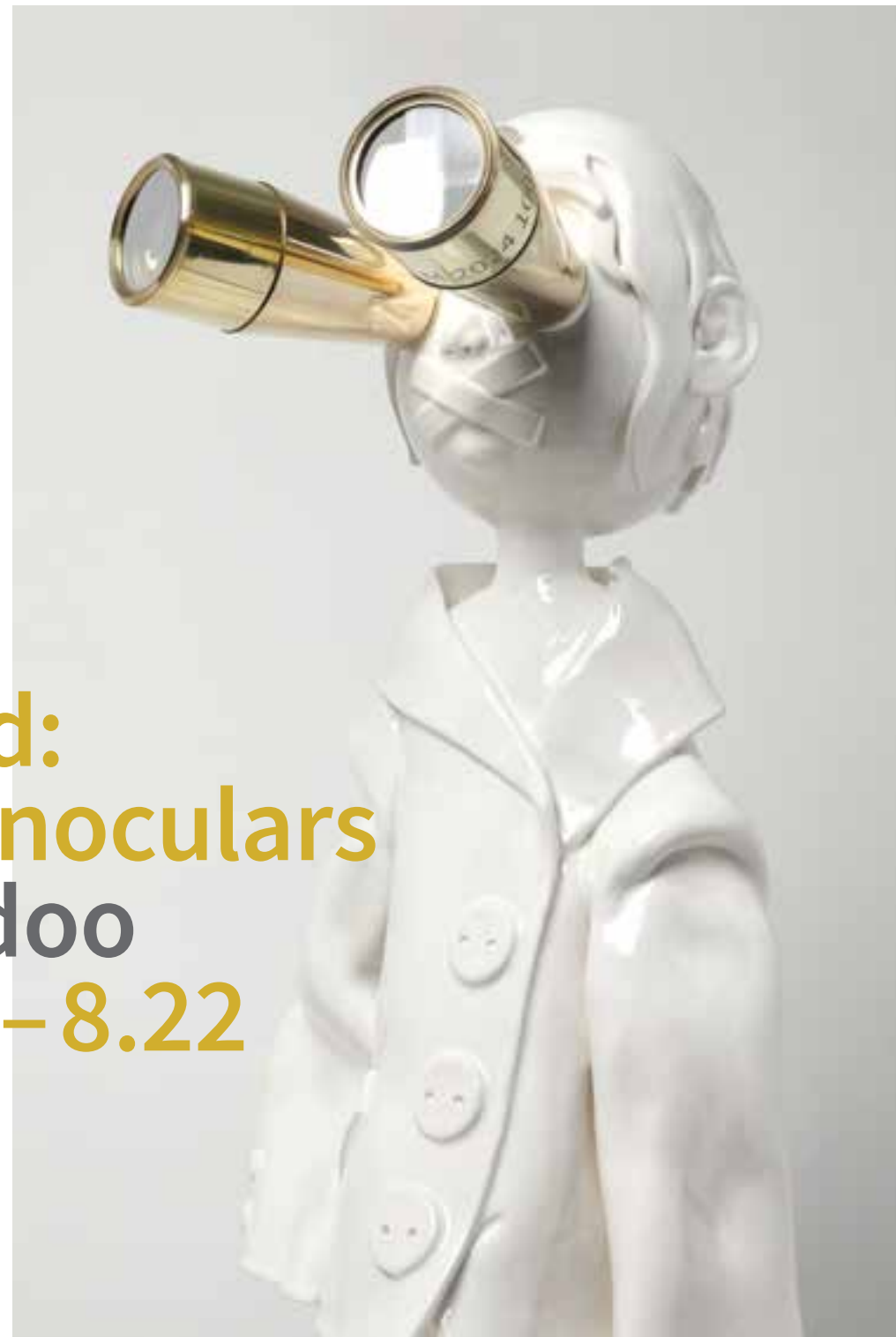


GALLERY
sklo

Underland: Golden Binoculars KIM Namdoo

Underland: Golden Binoculars KIM Namdoo 2025. 7. 18-8. 22

언더랜드: 황금망원경
김남두 개인전



GALLERY sklo

서울시 중구 다산로 16길 29 비컨힐 빌딩 1층 우)04591
1F. 29, Dasan-ro, 16-gil, Jung-gu, Seoul 04591 Korea
TEL 02. 2236. 1583 FAX 02. 2236. 1585 sklo@gallerysklo.com | www.gallerysklo.com | @ gallerysklo





Underland: Golden Binoculars

KIM Namdoo

언더랜드: 황금망원경 _ 김남두 개인전

2025. 7. 18 – 8. 22

GREETING 02

글 | 김효정, 갤러리스클로 대표

Written by | KIM Hyojung, Director of Gallery Sklo

FOREWORD 03, 33

김남두의 황금 망원경: 신기루를 좇아서

글 | 엘리자베스 아그로, 현 필라델피아 미술관 현대공예 및 장식예술 큐레이터

Namdoo Kim's Underland: Chasing Fata Morgana

Written by | Elisabeth Agro, Co-founder of Critical Craft Forum and Curator of Modern and Contemporary Craft and Decorative Arts at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

ARTIST STATEMENT 06

A TALE in ANIMATION 10, 36

애니메이션 | 언더랜드: 황금망원경

Animation | Underland: Golden Binoculars

WORKS 14

ARTIST BIOGRAPHY 38

갤러리스클로에서는 김남두작가의 2번째 개인전 『언더랜드(이면의 세계):황금망원경 Underland: Golden Binoculars』전을 개최합니다. 작가가 수년에 걸쳐 구상하고 다듬어온 ‘황금망원경’ 시리즈의 결정판이자, 그가 상상해 온 가상의 세계 ‘Underland’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작품들과 함께 공간 전체를 하나의 서사의 공간으로 통합한 몰입형 전시가 될 것입니다.

1년간 작업한 6분가량의 디지털 애니메이션에는 그가 그간 작업한 주인공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유토피아를 향한 여정을 믿고 떠나는 아이들과, 이를 조정하는 존재 ‘프레젠티’의 이야기를 통해, 황금망원경을 둘러싼 환상의 구조와 그것이 반복되는 순환적 서사를 동화적 비주얼로 풀어낸 실험적 작품입니다. 전시장 공간도 하나의 ‘서사적 방’으로 구성되어, 유기적인 흐름을 따라 관객은 애니메이션에서 가면과 신기루의 어두운 방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경험하고, 이 과정은 관객들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Underland: Golden Binoculars』는 단순한 작품 전시를 넘어, 전시장을 하나의 ‘조형적 거울’이자 ‘사유의 장’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작가는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 ‘Underland’ 세계를 더욱 확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양한 재료를 구사하며 주제와 소재와의 관계를 병행하며 탐구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실험적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김남두작가의 행보를 계속 주목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갤러리 스킨로 대표 김효정

Gallery Sklo is pleased to present 『Underland: Golden Binoculars』, the second solo exhibition by Kim Namdoo. This exhibition is the culmination of Kim’s long-standing Golden Binoculars series and brings to life the fictional world of Underland—a conceptual universe the artist has developed over several years. By integrating sculpture and a newly completed animation into a unified spatial narrative, the exhibition offers an immersive experience that invites viewers into Kim’s philosophical imagination.

The six-minute digital animation, created over the course of a year, features all the main characters from Kim’s previous works. Through the story of children who embark on a journey toward utopia in trust, and a controlling figure known as ‘Present,’ this experimental piece unfolds the structure of illusion surrounding the golden binoculars and its recurring, cyclical narrative in a fairy tale-like visual language. The exhibition space is composed as a ‘narrative room,’ guiding visitors through a seamless journey—from the animation into darker spaces that house the mask and mirage works. This spatial transition leads viewers into a reflective passage, posing questions rather than offering conclusions.

『Underland: Golden Binoculars』aspires to transform the gallery into both a ‘sculptural mirror’ and a ‘site of contemplation.’ The artist hopes this exhibition will serve as a point of departure for further expanding the Underland world. Through his deep engagement with materials and themes—and his commitment to experimental, hands-on processes—Kim Namdoo continues to chart a distinct and vital path in contemporary art.

KIM Hyojung, Director of Gallery Sklo

김남두의 황금 망원경: 신기루를 좇아서¹

글 | 엘리자베스 아그로 (Elisabeth Agro)*, 현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현대공예 및 장식예술 큐레이터

김남두는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순응(conformity)’과 ‘획일성(uniformity)’이라는 주제를 집요하게 탐구해왔다. 그는 유리, 도자, 혼합 재료를 조형 언어로 삼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가치 체계와 사회 규범, 권위 구조, 그리고 그것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압력을 직시하며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해왔다. 김의 작업은 사회와 국가, 가정, 그리고 기억과 의례의 층위 속에서 개인에게 끊임없이 부과되는 기대와 의무의 메커니즘을 조형화하는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권력과 제도의 얼굴을 드러낸다. 이번 개인전 『언더랜드: 황금망원경』은 바로 이러한 지속적인 질문과 관찰의 산물이다. 김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 주체성을 중시하는 현대적 가치관을 받아들인 세대의 일원으로서, 유교적 충성과 의무의 덕목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 질서와 그것이 빚어내는 사회적 충돌에 주목해 왔다. 유럽·미국 중심의 문화 코드와 그 영향을 강하게 받는 한국의 젊은 세대는, 지난 수십 년간 점차 약화되고 있는 전통적 가치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가부장적 가족 구조에 내재된 위계 질서와 기대에 저항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²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순응’이라는 원칙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연장자에 대한 존중, 상명하복의 관계는 일상과 문화 곳곳에 스며 있다. 그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 깊은 애정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억압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로 변질되곤 한다. 김의 『언더랜드: 황금망원경』은 교육, 직업,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어떻게 청년 세대에게 주입되고 강요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는 유년기의 순수함과 놀이를 통한 학습의 자유로움을 회복하고자 하며, “오늘날 한국의 아이들은 대량생산된 장난감 같다(Figure 1). 개성도, 인격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플라스틱 인형이나 종이인형처럼 취급된다”고 말한다.³

그의 조각은 팝 문화와 대중적 기호를 기묘하게 차용해 관람객에게 유쾌함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이러한 감정들이 부모 세대의 기대와 충돌할 때 생겨나는 아이러니를 자각하게 만든다. 그는 애니메이션, 설치, 조각을 결합한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이 작가가 상상한 ‘이면의 세계(Underland)’에 몰



Figure 1:
Way to go! Dude! | 2012
38 x 22 x 5 cm
Glass and mixed media

입하도록 유도한다. 김은 “소비사회에서 너무나 익숙해진 상징물들의 원래 의미와 기능을 재해석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메시지와 철학을 시각화하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강조한다.⁴

『언더랜드: 황금망원경』은 총 네 개의 구성 요소—애니메이션, 〈황금망원경(2세대)〉, 〈유물: 가면〉, 〈유물: 신기루〉—로 이루어져 있다. 이 프로젝트의 서사는 2013년에 제작된 여섯 점의 조각(Figure 2) 〈황금망원경〉 시리즈에서 시작되며,⁵ 이들은 모두 실물 크기의 인형 형태로 표현된 아이들이다. 김은 이 조각들을 통해 부모의 과도하게 복잡한 애정과 왜곡된 기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이 인물들은 인형과 어린아이의 특징이 혼합된 형상으로 묘사되며, 몸에 맞지 않는 양복과 드레스를 입고 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너무 이른 성숙을 요구하고, 그들의 가치와 기대를 아이에게 강요한다는 현실을 은유한다. 백색 유약으로 마감된 이 비어 있는 도자 조각들은 영혼을 잃어버린 채 자라나는 세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이들 조각의 눈에는 커다란 황금색 망원경이 부착되어 있다(Figure 3). 유리로 주조된 이 망원경은 자녀가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부모의 기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자녀가 감당해야 할 무게로 기능한다. 내부가 반사되는 이 망원경의 렌즈는 관객이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며, 그 안에서 자신 역시 이 사회의 압박과 가치 체계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황금으

로 장식된 망원경은 귀중한 선물처럼 보이지만, 실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상징적 부담이며,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특히 교육이라는 수단에 집중된 희생—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중심주의는 결과적으로 극도의 경쟁사회와 정서적 파열, 불안, 우울, 심지어 자살과 같은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김은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깊은 구조적 결함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려 한다.⁶

김남두가 작업의 중심 매체로 삼는 점토와 유리는 모두 유연성과 투명성을 지닌 재료로, ‘신기루’, ‘반복’, ‘기억’, ‘인식’이라는 주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동시대 작

Figure 2: Golden Binoculars | 2013
Five of six sculptures in ceramic gold leaf, mirrored glass. Dimensions variable; Private collections and collection of Gallery Sklo, Seoul

Figure 3: Detail from Golden Binoculars | 2013



가들 가운데서도 이 재료들이 지닌 본질적 성질을 가장 정교하게 활용하는 작가 중 하나로, 그 조형 언어는 개념적 깊이와 물질적 숙련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우리가 가진 반사, 왜곡, 투과, 확대, 그리고 깨지기 쉬운 속성은 그 자체로 현대 사회가 청년 세대에게 심어놓은 이상과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한 좌절과 결핍을 은유하는 도구가 된다. 김은 이를 통해 ‘신기루(Fata Morgana)’—즉, 사회가 제시하는 성공의 환상—을 상징화하며, 물질적 조형을 통해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전달한다.

이번 전시 『언더랜드: 황금망원경』은 현실과 환상, 존재와 부재, 기대와 좌절의 경계에서 작동하는 조형적 세계를 구현한다. 김남두는 이를 “현대 사회의 이면”이라 부르며, 조각이라는 언어를 통해 그 복합적 감정과 구조를 동시에 포착하고자 한다. 작품 속 세계는 자본주의와 유교적 유산, 가족과 교육, 사랑과 억압이 얽힌 한국 사회의 정서적 지형도를 드러내며, 관객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제공한다.

¹ Fata Morgana(신기루)는 아서 왕 전설의 마녀 모르간 르 페이(Morgan le Fay)의 이름에서 유래한 상위 계층의 신기루로, 그녀가 마술로 이런 환상을 만들어 뱃사람들을 함정으로 유인했다고 전해진다. Amber Kanuckel, “Fata Morgana: The Strange Mirages at Sea,” Farmer’s Almanac, <https://www.farmersalmanac.com/fata-morgana-mirage>. (2025년 6월 22일 접속).

² 본 에세이는 엘리자베스 아그로와 우현수 편, The Shape of Time: Korean Art after 1989 (뉴헤이븐: 예일 대학 출판부, 2023)의 191~196쪽 “Conformity”에서 발췌했다.

³ 김남두, “Life Is Good” (로체스터 공과대학교 석사 논문, 2013), 5쪽; <https://scholarworks.rit.edu/cgi/viewcontent.cgi?article=9711&context=theses> (2022년 6월 16일 접속).

⁴ 김남두, 필라델피아 미술관 작가 설문지 (조각 및 오브제 부문), 2021년 12월 24일. 필라델피아 미술관 큐레토리얼 파일에서 인용.

⁵ 김남두의 《황금 망원경》은 아그로와 우현수의 The Shape of Time 194~196쪽 “Conformity”에 소개되었다. 2023년 가을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열린 이 대규모 전시는 한국계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사회 규범에의 순응 압력과 그에 대한 저항을 다룬 작품을 선보였다. 김남두의 작업은 한국적 경험을 조명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조건의 보편성에도 주목해 관객으로 하여금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낸다.

⁶ 김남두, “Life is Good,” 17쪽.

Elisabeth Agro* 엘리자베스 아그로는 크리티컬 크래프트 포럼(Critical Craft Forum)의 공동 설립자이자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Philadelphia Museum of Art) 현대공예 및 장식예술 부문 큐레이터로 재직 중이며, 동시대 미술의 변화하는 글로벌 지형 속에서 공예의 위상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요 기획 전시로는 『시간의 형태: 1989년 이후 한국미술』(2023)과 『봄: 1940년대의 예술과 디자인』(2025) 등이 있으며, 각각 동명의 도록을 함께 발간하였다. 한국에서는 경기도국제도자비엔날레 및 청주공예비엔날레의 자문 및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2006년 필라델피아미술관 합류 이전에는 카네기미술관, J. 폴 게티 미술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ARTIST STATEMENT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 실제인가, 혹은 조작된 이미지인가?”
 “이 반복은 누구를 위한 구조이며, 그 끝은 어디를 향하는가?” - 작가노트에서 발췌

『Underland: Golden Binoculars 언더랜드 (이면의 세계): 황금망원경』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상상의 세계를 현실 위에 펼쳐보는 첫 시도이다. 이 세계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면을 비추는 하나의 은유적 공간이며, 조형 언어를 통해 드러나는 인식의 거울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이미지와 정보, 소비의 흐름 속에서 진실과 허구의 경계를 잃고 살아간다. 그 속에서 본질은 점차 희미해지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놓치고 있다.

지속적으로 나의 작업에서 주축이 되어왔던 ‘황금망원경’은 이 전시의 핵심 장치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징으로 시작되었지만, 조각과 영상, 설치 속에서 점점 더 복잡적이고 심화된 조형 오브제로 진화되었다. 황금망원경을 낀 채 떠나는 아이들의 여정은 반복되는 희망과 실망,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욕망의 순환을 상징한다. 이러한 구조는 〈애니메이션: 황금망원경〉속 이야기로 구체화되며, 관객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유토피아가 과연 실재하는지, 혹은 누군가에 의해 구성된 환상인지 질문을 던진다.

본 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황금망원경, 가면, 신기루 그리고 처음 시도해본 영상작업을 통해서 공간 속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해보고 싶다.

〈황금망원경 (2세대)〉에서는 관람자의 시선을 반전시키는 장치로서, 시각적 관심을 넘어 자기 응시의 체험을 경험한다. 망원경을 통해 보이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오는 정제되지 않은 현실이다. 이 장치는 오늘날의 자기 재현 방식-소셜 미디어나

이미지 중심의 문화-에 대한 반성적 구조이기도 하다. 〈아트팩트: 가면〉은 반복과 동일성,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얼굴의 구조를 시각화하고, 유리라는 재료의 투명성과 반사성은 존재와 부재의 경계를 시사한다. 이 수백 개의 유리 가면은 모두 개별적이지만 동시에 구조적으로 복제되며, 우리는 그 안에서 나와 타인의 경계를 묻게 된다. 그리고 〈아트팩트: 신기루〉는 본질과 가상이 접촉하는 순간, 우리가 믿고 따라가던 희망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유리 가면은 신기루처럼 떠오르지만, 그 기반은 늘 규사-즉 본질의 입자-위에 있다.

『Underland / 언더랜드: 이면의 세계』는 나에게 있어 하나의 조형적 우화이다. 시뮬라크르와 가상의 반복, 실재의 부재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이 전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관객에게 건네본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 실제인가, 혹은 조작된 이미지인가?”
 “이 반복은 누구를 위한 구조이며, 그 끝은 어디를 향하는가?”



ARTIST STATEMENT

“What are we really seeing?”
 “Is it real—or a constructed image?”
 “Whom does this repetition serve, and where is it leading us?” - excerpts from the artist statement

『Underland: Golden Binoculars』 is my first attempt to unfold a long-held imaginary world into physical space. This world is not a mere fantasy, but a metaphorical realm that mirrors the underside of contemporary reality—a reflective surface shaped through sculptural language. In the endless stream of images, information, and consumption, we lose sight of the boundary between truth and illusion. In this process, the essence becomes increasingly blurred, and we often forget what it is we are truly seeing.

At the core of this exhibition is the Golden Binoculars, a recurring motif in my practice. What began as a simple symbol has evolved into a complex sculptural device across sculpture, video, and installation. The journey of children wearing golden binoculars represents a cycle of hope, disappointment, and renewed desire. This structure is articulated in the animation Golden Binoculars, which invites viewers to question whether the utopia we pursue is real—or an illusion constructed by others.

Through four key elements—Golden Binoculars, Mask, Mirage, and my first foray into animation—I hope to create a space that breathes with its audience. In **Golden Binoculars (2nd Gen)**, the object functions as a visual reversal device, shifting attention from outward

observation to inward reflection. What appears through the lenses is not the world beyond, but an unfiltered re-turn to the self. It is a critical device, echoing today’s culture of self-representation shaped by social media and image-driven narratives.

Artifact: Mask visualizes the structure of repetition, sameness, and the socially constructed face. Glass, with its transparency and reflectivity, gestures toward the fragile boundary between presence and absence. Each mask is individually made yet structurally replicated, prompting questions about the border between self and other.

Artifact: Mirage evokes the fleeting nature of desire, revealing how easily our hopes—those we believe in and follow—can disappear. The glass masks float like a mirage, yet their foundation is always silica—the elemental grain of truth.

For me, 『Underland』 is a sculptural fable. In a world of simulacra, repetition, and the absence of the real, what is it that we should strive for? Through this exhibition, I offer the following questions to the viewer:

“What are we really seeing?”
 “Is it real—or a constructed image?”
 “Whom does this repetition serve, and where is it leading us?”



전시 전경 | View of Exhibition

애니메이션 | 언더랜드: 황금망원경

옛날 옛날,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이 있었어요.
소년과 그의 부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며,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지요.
밤이 되면 하늘엔 언제나 반짝이는 하나의 별이 떠 있었고, 그 별은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와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머리에 반짝이는 투명한 도시를 이고, 태엽으로 장식된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 안드로이드가 마을에 나타났어요.
그녀의 이름은 '프레젠티'.
그녀는 부드럽고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저 별에서 왔어요.
그곳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은보화와 끝없는 행복이 있는 유토피아가 있지요.
이 ‘황금망원경’을 통해 그곳으로 가는 길을 볼 수 있어요.
당신들의 아이는 그 길을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경쟁하듯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놓고 황금망원경과 교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먼 길을 떠날 아이에게 넉넉하게 큰 신발과 옷을 입히고 ‘프레젠티’의 비밀의 방으로 보냈어요.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안겨주고 싶은 마음, 오랜 여정을 견딜 수 있게 해주 고픈 부모의 마음이 황금망원경과 큰 옷에 담겨 있었지요.

‘프레젠티’는 그녀의 비밀의 방에서 아이 하나하나의 입에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말을 하지 못하게 마법으로 봉인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온몸에 하얀 액체를 덮었지요.
그것은 마법의 길을 건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식이었어요.
황금망원경은 마치 운명처럼 아이의 눈에 달라붙었고, 그렇게 아이들은 아무 말없이 먼 여정을 떠났어요.

그 길은 이상한 곳이었어요.
시간과 공간이 현실과는 달랐고, 서로 가까이 있어도 서로를 볼 수 없었어요.
소년과 아이들은 오직 저 멀리 반짝이는 유토피아의 문만을 바라보며 달려갔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소년과 아이들은 자랐고, 한때는 너무 컸던 옷이 이제는 꼭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유토피아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황금망원경은 스르르 사라지고, 몸에 묻은 하얀 액체도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문 너머엔 찬란한 도시가 있었어요.
처음엔 눈부신 빛에 감탄했지만, 이내 그곳의 삭막함에 실망을 느꼈지요.
그곳에서 소년은 오래전 함께 놀던 소녀를 다시 만났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회색 도시의 일상 속, '프레젠티'는 또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직접 아닌, 빌딩의 전광판, 텔레비전 속 광고로 등장했지요.
“새로운 유토피아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황금망원경을 착용하세요.”

도시의 사람들은 다시 줄을 섰어요.
그리고 소년도 자신의 아이에게 황금망원경을 사주기 위해 전재산을 바쳤지요.
아이에게 큰 옷을 입히고, 하얀 액체를 덮어씌운 채, 아이를 또 다시 마법의 길로 보냈어요.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빛을 향해 달려갔어요.

사실 그들이 달려가던 그 길은 커다란 쳃바퀴 안이었어요.
그리고 거대한 '프레젠티'가 멀리서 조명을 비추며 다시 아이들을 유인하고 있었지요.
반복되는 여정, 사라지지 않는 희망의 환영.
과연 그곳에 진짜 유토피아는 있었던 걸까요?

Underland: Golden Binoculars | 2025
3D animation, FHD(1920x1080), Stereo Sound | 6min 22sec
Produced by Premier AI Creatives





황금망원경 2세대

이번 2세대 작업에서 중심이 되는 장치는 ‘황금망원경’이다. 망원경은 정교하게 구조한 금속으로 제작되었고, 내부에 특수 거울을 장착하였다. 멀리서 보면 그 형태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관람자의 모공, 흉터, 잔털까지도 확대되어 거침없이 드러난다. 이 과도한 디테일의 노출이 주는 불편함을 통해 시선의 방향을 거꾸로 돌려, 보는 자가 어느새 ‘응시당하는 대상’이 되는 역전된 경험을 주고, 평소 외면하고 살아가는 ‘가감 없는 현실의 민낯’과 직면한다.

내가 믿고 있는 현실이란 얼마나 많은 왜곡과 회피, 허구로 구성되어 있는가. 황금망원경은 ‘가상 속의 현실’이 아닌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가상’을 해체하는 예술적 실천이기도 하다.

“우리는 진짜 무엇을 보고 있는가?”

황금망원경(2세대) Golden Binoculars (2nd Generation) M 2025 0107 TU
 2025 | h52 x w26 x d25 cm
 석기질 점토(손성형), 황동(주조), 특수거울
 Hand-built ceramic, Cast brass, Concave mirror

Golden Binoculars (2nd Generation)

The central device in this second-generation work is the Golden Binoculars. Cast in finely detailed metal and fitted with a specially treated mirror, the object appears blurred and indistinct from a distance. But when approached, it reveals every pore, scar, and strand of hair on the viewer’s face in stark detail. The discomfort caused by this level of exposure reverses the direction of the gaze—transforming the observer into the observed—and leads to a direct encounter with the unfiltered surface of reality often avoided in daily life.

The reality widely accepted and believed in is, in many ways, shaped by distortion, evasion, and fabrication. The Golden Binoculars is not a tool that reveals a constructed “reality within virtuality,” but a sculptural act that dismantles the virtuality used to escape the real.

“What is it that we are truly seeing?”



◀ Golden Bionoculars (2nd Gen.) [F 2024 1109 SA](#)
2025 | h50 x w31 x d26 cm
Hand-built ceramic, Cast brass, Concave mirror

- ▶
- 1. Golden Bionoculars (2nd Gen.) [M 2024 1110 SU](#)
2025 | h52 x w29 x d26 cm
 - 2. Golden Bionoculars (2nd Gen.) [M 2025 0214 FR](#)
2025 | h55 x w28 x d25 cm
 - 3. Golden Bionoculars (2nd Gen.) [F 2024 1016 WE](#)
2025 | h51 x w22 x d23 cm
 - 4. Golden Bionoculars (2nd Gen.) [F 2025 0116 TH](#)
2025 | h49 x w25 x d27 cm
Hand-built ceramic, Cast brass, Concave mirror



1



2



3



4



1



2



3



4

▶ Golden Bionoculars (2nd Gen.) [F 2025 0202 SU](#)
2025 | h50 x w25 x d26 cm (left)
Golden Bionoculars (2nd Gen.) [M 2025 0107 TU](#)
2025 | h52 x w26 x d25 cm (right)
Hand-built ceramic, Cast brass, Concave mirror



◀ 1. Golden Bionoculars (2nd Gen.) [M 2024 1128 TH](#)
2025 | h52 x w33 x d30 cm
2. Golden Bionoculars (2nd Gen.) [M 2025 0117 FR](#)
2025 | h53 x w23 x d25 cm
3. Golden Bionoculars (2nd Gen.) [F 2024 1006 SU](#)
2025 | h53 x w23 x d24 cm
4. Golden Bionoculars (2nd Gen.) [F 2024 1127 WE](#)
2025 | h51 x w20 x d28 cm
Hand-built ceramic, Cast brass, Concave mirror



전시 전경 | View of Exhibition

- 1. Golden Bionoculars (2nd Gen.) [M 2025 0529 TH](#) | 2025 | h50 x w30 x d34 cm
 - 2. Golden Bionoculars (2nd Gen.) [M 2025 0405 SA](#) | 2025 | h53 x w30 x d33 cm
 - 3. Golden Bionoculars (2nd Gen.) [F 2025 0512 MO](#) | 2025 | h50 x w30 x d34 cm
 - 4. Golden Bionoculars (2nd Gen.) [F 2025 0314 FR](#) | 2025 | h49 x w30 x d35 cm
- Hand-built ceramic, Cast brass, Concave mirror, Stainless steel





아티팩트: 신기루

〈아티팩트: 신기루〉는 ‘황금망원경’ 시리즈가 던지는 ‘본질과 환영’, ‘이미지와 실재’의 긴장 구조를 깊이 있게 시각화한 설치 작업이다. 정제되지 않은 규사 위에 유리 가면을 배치한 설치 작업으로, 본질과 가상, 희망과 환영에 대한 탐구이다.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컨테이너는 어떤 욕망이나 희망을 담는 ‘그릇’처럼 존재하며, 그 안에는 유리의 원재료인 거친 규사가 채워져 있다. 이 위에 물처럼 투명한 유리 가면들이 뒤집힌 채 묻혀 있다. 이 구조는 마치 사막 위의 오아시스를 연상케 하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형성한다.

규사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본질’로 세상의 본래 물질이며, 유리는 그 규사가 고온에 의해 변형되고 정제되어 탄생한, 조작되고 연마된 ‘가상’ 이미지이다. 그 관계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선다. 유리는 규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 투명한 유리의 모습은 규사가 접촉하는 방식에 따라 더욱 또렷이 드러난다. 가상은 본질에 기생하면서도, 본질을 통해 자신의 형태를 밝히는 역설적인 관계를 갖는다.

Artifact: Mirage

〈Artifact: Mirage〉 is an installation that further develops the tension between essence and illusion, image and reality—central concerns through-

out the ‘Golden Binoculars’ series. The work consists of glass masks arranged on a bed of unrefined silica. A stainless steel container holds the composition, functioning like a vessel for desire or hope, filled with coarse sand – the raw material of glass. Transparent glass masks, overturned and half-buried, rest quietly on its surface. The overall structure evokes the image of an oasis in the desert, forming a subtle boundary between what is real and what is imagined.

Here, silica is regarded as a kind of essence – a material that exists before transformation. Glass, on the other hand, is the result of intense heat and processing: refined, shaped, and made to appear clear.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resists any simple binary. Glass cannot exist without silica. And the clarity of glass depends on how it touches and reflects the grains beneath it. The virtual reveals itself only through the presence of the essential, and yet, in doing so, begins to define that essence in return.

Artifact: Mirage does not seek to resolve this relationship, but to allow it to sit in tension—gently, without disruption. It is an arrangement in which what is seen and what is sensed remain inseparable.

◀ 전시 전경 | View of Exhibition



아티팩트: 신기루-**사라지는 오아시스** | 2025 | h37 x w54 x d54 cm | 유리(주조), 규사, 스테인리스 스틸 (left)
 Artifact: Mirage-**Vanishing Oasis** | 2025 | h14.6 x w21.3 x d21.3 in | Cast Glass, Silica sand, Stainless Steel

아티팩트: 신기루-**빛의 메아리** | 2025 | h37 x w64 x d64 cm | 유리(주조), 규사, 스테인리스 스틸 (right)
 Artifact: Mirage-**Echo of Light** | 2025 | h14.6 x w25.2 x d25.2 in | Cast Glass, Silica sand, Stainless Steel



아티팩트: 신기루-**거짓 수평선** | 2025 | h37 x w60 x d84 cm | 유리(주조), 규사, 스테인리스 스틸
 Artifact: Mirage-**False Horizon** | 2025 | h14.6 x w23.6 x d33 in | Cast Glass, Silica sand, Stainless Steel



아티팩트: 가면

〈아티팩트: 가면〉은 ‘황금망원경’ 시리즈가 제시하는 ‘관계 속 환상’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확장하는 설치 장면이다. 독립된 방안, 벽면을 가득 채운 정렬된 유리 가면은, 어린이들이 망원경을 쥐고 향하는 유토피아처럼 우리의 얼굴을 복제하고 반영한다.

이 작품은 영화 ‘매트릭스 2’의 ‘아키텍트(설계자)의 방’ 장면에서 영감을 받았다. 아키텍트의 방은 수많은 텔레비전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방에서 주인공 네오는 자신이 ‘처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수백 개의 텔레비전 화면 속에는 수많은 다른 버전의 네오들이 존재하며,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선 ‘희망’이라는 허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는 인류가 같은 패턴을 되풀이하며, 통제된 시스템 안에서 조작된 희망을 부여받고 있다는 세계관을 보여준다.

무수히 반복된 유리 가면들은 하나하나가 ‘개별성’을 주장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구조 안에서 복제되고 변주된 집합체로 구성된다. 현대 사회가 표면적으로는 다양성을 지향하는 듯 보이나, 결국은 통제된 반복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Artifact: Mask

〈Artifact: Mask〉 is an installation that visually extends the structure of relational illusion presented

in the ‘Golden Binoculars’ series. Inside an enclosed room, the walls are filled with rows of identical glass masks. Much like the children grasping their binoculars in pursuit of a utopia, these masks replicate and reflect our faces—suggesting a shared longing shaped through repetition.

The work draws inspiration from the ‘Architect’s Room’ in ‘The Matrix Reloaded’. In that scene, the protagonist Neo learns that he is not the first version of himself. The room, surrounded by countless television screens, reveals multiple versions of Neo existing simultaneously. It becomes clear that hope – though constructed – is essential for human continuity. The system offers illusion as a form of control, while humanity, unaware, repeats the same patterns again and again.

The replicated glass masks may seem to assert their individuality, yet each belongs to a larger system of controlled variation. They are produced, arranged, and multiplied within a framework that appears to value difference, but in truth resists deviation. What emerges is a quiet critique: a world that speaks of diversity, but is governed by uniformity – designed to mirror, not to question.



1



2



3



4



5



6



아티팩트: 가면-하늘을 삼킨 아이 | 2025
 h35 x w27 x d12 cm
 유리(주조), 에나멜, 스테인리스 스틸
 Artifact: Mask-Child who swallowed skies | 2025
 h13.8 x w10.6 x d4.7 in
 Cast Glass, Enamel, Stainless Steel



1. 아티팩트: 가면-내일의 소리를 듣는 아이 | 2025
 Artifact: Mask-Child who heard tomorrow

2. 아티팩트: 가면-물에서 자라는 아이 | 2025
 Artifact: Mask-Child who grows from water

3. 아티팩트: 가면-기호로 세상을 보는 아이 | 2025
 Artifact: Mask-Child who sees with signs

4. 아티팩트: 가면-두개의 심장을 가진 몽상가 아이 | 2025
 Artifact: Mask-The dreamer with twin hearts

5. 아티팩트: 가면-불의 시선을 쓴 아이 | 2025
 Artifact: Mask-Child who wears the gaze of fire

6. 아티팩트: 가면-바람의 암호를 푸는 아이 | 2025
 Artifact: Mask-The coder of winds



프레젠티

〈프레젠티〉는 ‘황금망원경’ 시리즈의 핵심을 이루는 세라믹 조각이다. 정교하게 제작된 안드로이드 형상은 화려한 크리놀린 드레스를 입고 있으며, 머리 위에는 유리로 제작된 미니어처 도시가 안정적으로 위치한다. 작품 제목 ‘프레젠티’는 시간적 개념의 ‘현재’와 물질적 개념의 ‘선물’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유리 도시는 현대 사회가 갈망하는 유토피아의 이미지를 투명하게 구현한다. 유리 소재가 지닌 시각적 아름다움과 물리적 취약성은 이상향의 양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이와 대비되는 세라믹의 유기적 질감은 작품에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애니메이션에서 황금망원경 세계를 주관하는 〈프레젠티〉는 환영과 현실, 주체와 구조의 경계에 선 존재이다. 일상에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선물’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시대의 욕망 구조에 대한 진지하면서도 인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프레젠티 5 Present 5 | 2024

h76 x w51 x d51 cm

Hand-built ceramic, cast & frameworke glass, copper, brass

Present

〈Present〉 is a pivotal ceramic sculpture in the ‘Golden Binoculars’ series. The meticulously crafted android figure, dressed in an extravagant crinoline gown, supports a delicately rendered glass city atop its head. The title ‘Present’ holds dual meaning—referring both to the temporal notion of ‘now’ and the material idea of a ‘gift.’ The glass city embodies a utopian ideal longed for in contemporary society. Its visual brilliance and physical fragility reveal the duality of such aspirations, while the organic texture of the ceramic provides the piece with a sense of warmth and vitality.

As the sculptural embodiment of the character that governs the Golden Binoculars universe in the animation, 〈Present〉 stands at the threshold between illusion and reality, subject and system. It prompts reflection on the essential nature of the ‘gifts’ we uncritically accept, offering a deeply human yet critically attuned view of our contemporary structures of desire.

Namdoo Kim's Underland: Chasing Fata Morgana¹

written by | Elisabeth Agro*, Co-Founder of Critical Craft Forum and Curator of Modern and Contemporary Craft and Decorative Arts at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



For over thirteen years Namdoo Kim has plumbed the subject of conformity and uniformity, and their intersections with society. Acting as an interlocutor through his use of glass, ceramics, and mixed media to create his work, Kim probes and comments on societal norms and attitudes surrounding deeply engrained values, societal pressures, established systems of power and control culminating in an illusion of fulfillment. Family and its importance in imparting values and the consummation of obligations within its structure, in society, and for the nation form a unique set of pressures imposed at home, at work, and by the government, and even in memory, ritual, and commemoration. Kim's solo exhibition, 『Underland: Golden Binoculars』 brings the outcomes of these pressures to life. Of a generation who has embraced contemporary ideals and concepts such as individual choice, his work gives form to the rapid shifts in societal values observed in South Korea's younger generation that are influenced by Euro-American cultural codes, conflicting with Confucian principles of loyalty and obligation. South Koreans born since the late 1980s have witnessed the beginning of a slow weakening of traditional ideals and have actively raised their voices

in the face of what they see as anachronistic societal norms, challenging and upending patriarchal hierarchies that are foundational in the family structure.²

Tensions surrounding conformity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society is still evident, with principles such as uniformity and respect for elders and superiors still maintaining their hold.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can be oppressive, especially when pushed to extremes. Kim's 『Underland: Golden Binoculars』 directly addresses the obsession with education, vocation, and status forced on South Korean youth. Referencing the purity and innocence of childhood and the freedom of learning through play (Fig. 1), he believes that “Children in Korea today are like mass produced toys. They are



Figure 1:
Way to go! Dude! | 2012
38 x 22 x 5 cm
Glass and mixed media

meant to be all exactly alike, lacking individuality and quality of character, a whole society of people who are easily replaceable and hold little value as individuals, just like mass produced plastic toys or paper dolls.”³ Using both iconic and pop–culture imagery, Kim’s sculptures are intended to elicit feelings of joy, innocence, and irony, as well as effect self–examination of the inherent conflict between these emotions and parental expectations. Integrating animation, installation, and sculpture in this solo exhibition, Kim invites the viewer to immerse themselves in his imagined world where “art reinterprets the original meaning and purpose of obvious pop objects in our consumer society, visualizing them in terms of their underlying societal messaging, implications, and philosophies.”⁴

Comprising of four components—〈Animation〉, 〈Golden Binoculars (2nd Gen)〉, 〈Artifact: Mask〉 and 〈Artifact: Mirage〉—『Underland: Golden Binoculars』 origin story begins with six sculptures titled 『Golden Binoculars』 (2013) that depicted children as life–sized dolls (Fig. 2).⁵ To reinforce a feeling of parents’ convoluted affection toward their offspring, the artist intentionally created these figures to be an amalgam of dolls and human children. The “uniforms” of ill–fitting business suits and dresses droop on each figure to convey parents’ wishes for their children to grow up fast, adhering to their values and elevated expectations that do not fit the children’s ages. For Kim, these hollow ceramic figures covered in

white glaze symbolize a younger generation that lacks a soul. Each has a large pair of golden binoculars affixed to its eyes as if an essential appendage (Fig. 3). The artist uses this prop, cast in glass, to communicate the weight of parents’ expectation that their children pursue lofty goals, now magnified in their sightline. A reflective finish on the interior surface of the binoculars’ lenses allows viewers to peer into them, seeing their own reflections and contemplating themselves as affected by these same societal pressures. The binoculars are golden—and thus an expensive token not to be refused—and can be read as a priceless present signifying parents’ affection, or their sacrifice. Such sacrifice often takes the form of providing for children’s education, an obsessive concern that stems from Confucianism’s aspirations of upward mobility. Yet, the hyperfocus on academic success engenders a highly competitive society and results in

Figure 2: **Golden Binoculars** | 2013
Five of six sculptures in ceramic gold leaf, mirrored glass. Dimensions variable; Private collections and collection of Gallery Sklo, Seoul

Figure 3: **Detail from Golden Binoculars** | 2013



escalating negative factors such as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Using specific tropes unique to the Republic and its preoccupation with education as a measure of success, Kim not only criticizes what he perceives as detrimental but also, more importantly, brings visibility to what he sees as a flaw in Korean culture.⁶

The primary materials that Kim favors are clay and glass; whose malleability and transparency are in full play in the realization of his work and themes of illusion, repetition, perception, memory, and truth. Kim distinguishes himself among his peers by adeptly utilizing the intrinsic properties of these materials to add depth to his conceptual driven output. His virtuosic skill in manipulating these materials to mold, control, cast, and be formed by fire imbues deeper meaning into his oeuvre. By utilizing glass’ inherent qualities—reflectivity, transparency, magnification, distortion, and fragility—Kim transforms the medium as metaphoric tool. In doing so, he unveils a 〈Fata Morgana〉, which represents the idealized delusion of ambition that society instills in today’s youth. Using these materials strategically to realize 『Underland: Golden Binoculars』, Kim examines, evaluates, and critiques society to explore the liminal space between presence and absence. Consequently, Kim translates an imagined world—driven by vicious cycles of high expectations and dissatisfaction—into a tangible reality, which he describes as “the underside of our contemporary existence,” showcasing a sculptural language that captures both simultaneously.

¹ Fata Morgana is a superior mirage that is named for the sorceress Morgan le Fay, from the Arthurian legend, who was said to use these images with her witchcraft to lure unwitting sailors into her traps. Amber Kanuckel, “Fata Morgana: The Strange Mirages at Sea,” *Farmer’s Almanac*, <https://www.farmersalmanac.com/fata-morgana-mirage>. (accessed June 22, 2025).

² This essay is drawn from “Conformity” in Elisabeth Agro and Hyunsoo Woo, *The Shape of Time: Korean Art after 1989*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23), 191 – 196.

³ Namdoo Kim, “Life Is Good” (MFA thesis,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2013), 5; <https://scholarworks.rit.edu/cgi/viewcontent.cgi?article=9711&context=theses> (accessed June 16, 2022).

⁴ Namdoo Kim, PMA Artist Questionnaire, *Objects and Sculpture*, December 24, 2021. From the curatorial files, Philadelphia Museum of Art.

⁵ Namdoo Kim’s *Golden Binoculars* was presented in “Conformity” in Agro and Woo, *The Shape of Time*, 194 – 196. A major exhibition at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 presented in fall 2023, *The Shape of Time* focused on artists of Korean descent whose work reflected on the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at shaped South Korea, the pressure to conform to societal norms and Koreans’ own resistance to these experiences. Kim’s work highlights a distinctly Korean experience but also addresses the universality of this societal condition which make visceral connections to a people and culture, find empathy and understanding, and draw connections to our own experiences.

⁶ Namdoo Kim, “Life is Good,” 17.

Elisabeth Agro* is a co–Founder of Critical Craft Forum and Curator of Modern and Contemporary Craft and Decorative Arts at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 where she works toward craft’s inclusion in the ever–changing global landscape of contemporary art. Her recent exhibitions with accompanying publications include *The Shape of Time: Korean Art after 1989* (2023) and *Boom: Art & Design in the 1940s* (2025).

She has advised and juried the Gyeonggi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and Cheongju Craft Biennale in South Korea. Prior to joining the PMA in 2006, Elisabeth held positions at Carnegie Museum of Art, J. Paul Getty Museum and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nimation | Underland: Golden Binoculars

Once, there was a quiet and peaceful village. A young boy lived there with his parents and fellow villagers, their days passing like those of a close-knit family, free from worldly worries. Every night, a single bright star would appear in the sky, filling the villagers with an inexplicable, mysterious hope.

Then one day, an android woman named Present arrived in the village. She wore a dress adorned with clockwork gears, and atop her head rested a shimmering, translucent city. Her voice was both gentle and piercing as she spoke:

"I have come from that star,

It is a star of infinite wealth and happiness,

With these Golden Binoculars, you can reach that star,

The journey is long and costly—but it is a worthy investment in your child's future."

At first, the villagers hesitated. But soon, they began competing to trade everything they owned for the Golden Binoculars. Parents dressed their children in oversized clothes and sent them to Present's secret chamber—hoping to secure a future full of promise and prepare them for the arduous journey ahead.

Inside her hidden room, Present gently sealed each child's mouth with a spell, rendering them silent. Then she coated their bodies in a white liquid—a necessary ritual for traversing the enchanted path. The Golden Binoculars fused to their eyes as if bound by fate. Without a word, the children set off on their long pilgrimage.

It was a strange path, unbound by ordinary time or space. Though they walked side by side, they could not see one another. Their only choice was to run toward the distant, glowing gates of utopia.

Years passed. The boy and the other children grew, their once-oversized clothes now fitting snugly. When they finally reached the utopian gates, the Golden Binoculars crumbled away, and the white liquid vanished without a trace.

Beyond the gates lay a dazzling city. At first, its brilliance left them in awe—but soon, they felt only disappointment at its cold emptiness. There, the boy reunited with a girl he had once played with in the village. They fell in love and had a child. Yet within the city's monotonous gray routines, Present returned—not in person, but through billboards and television screens: "A new utopia awaits you. Wear the Golden Binoculars."

Once again, the people lined up. The man gave everything he had to buy the binoculars for his child. He dressed them in oversized robes, coated them in the white liquid, and sent them down the same enchanted path.

Just like their parents before them, the children ran blindly toward the light.

The truth? That path was nothing but a colossal hamster wheel. And in the distance, a giant Present stood, shining a spotlight to lure in more children. An endless cycle, a mirage of hope that would never be fulfilled. Had there ever been a real utopia?



Artist Biography

EDUCATION

2021 Ph.D., Glass,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Australia
 2015 M.F.A., Glass,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Rochester, NY, USA
 2011 B.F.A., Glass & Ceramic,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SOLO EXHIBITIONS

2025 Underland: Golden Binoculars, Gallery Sklo, Seoul, Korea
 Underland: A Unique Lens on the Hidden Realities, College of East Asian Studies Gallery, Middletown CT, USA
 2021 Present, Vergette Gallery, Carbondale IL, USA
 Revealing the Invisible, Gallery Sklo, Seoul, Korea
 2020 Revealing the Invisible (Ph.D. Solo Exhibition), ANU Gallery, Canberra, Australia
 2013 Life is Good (MFA Thesis Solo Exhibition), Ohringer Gallery, NY, US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5 Korea Galleries Art Fair, Gallery Sklo at COEX, Seoul, Korea
 2024 CONNECTED: The Language of Objects, 3 person show, Gallery Sklo, Seoul, Korea
 Small Favors, The Clay Studio, Philadelphia PA, USA
 2023 Kiaf SEOUL, Gallery Sklo at COEX, Seoul, Korea
 Industrial Rhapsody, Alexander Tutsek-Stiftung (Museum), Munich, Germany
 Frames from Art, Kastamonu University, Kastamonu, Turkey
 2022 Dialogue, The Hyundai Department Store, Seoul, Korea
 Breaking Boundaries, Gallery Sklo, Seoul, Korea
 Strefy Autonomiczne, BWA Wrocław Główny, Wrocław, Poland
 Autonomous Zones, Traver Gallery, Seattle, WA, USA
 2021 Korea Galleries Art Fair, Gallery Sklo at COEX, Seoul, Korea
 2020 KIAF: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virtual exhibition), Gallery Sklo, Korea
 Glass Flex (Studio Glass in Korea), Gallery Sklo, Seoul, Korea

Collect: International Art Fair for Modern Craft and Design, Gallery Sklo at Somerset House, London, UK
 2019 KIAF: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Gallery Sklo at COEX, Seoul, Korea
 Style in Glass II, Gallery Sklo, Seoul, Korea
 Korea Galleries Art Fair, Gallery SKLO at COEX, Seoul, Korea
 Perspective, Red Moon Art Glass Gallery, Melbourne, Australia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of Glass Kanazawa, Shinoki Cultural Complex, Kanazawa, Japan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of Glass Kanazawa, Notojima Glass Art Museum, Notojima, Japan
 2018 SOFA Expo: Sculpture Objects Functional Art and Design, Gallery Sklo at SOFA Chicago, IL, USA
 Big Awards, CAGE Gallery, Barcelona, Spain
 KIAF: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Gallery Sklo at COEX, Seoul, Korea
 Material Imagination : Glass & Ceramics, Gallery SKLO, Seoul, Korea
 International Ceramic & Glass Exhibition, Kastamonu University, Kastamonu, Turkey
 National Emerging Art Glass Prize 2018, Wagga Wagga Art Gallery, NSW, Australia
 2017 Hangzhou International Contemporary Glass Art Exhibition, Craft Museum of CAA, Hangzhou, China
 Art in Craft Media 2017, Burchfield Penney Art Center, NY, USA
 Random, ANU School of Art Foyer Gallery, Canberra, Australia
 Flame on glass 2017, Kirra Gallery, Melbourne, Australia
 Small works show (National juried competition), Main street arts gallery, NY, USA
 2016 Emerging Artist in Residency Exhibition, Schack Art Center, WA, USA
 International Juried Art Competition & Exhibition, Art Kudos, USA
 Three, Alumni Exhibition, Gallery R, NY, USA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of Glass Kanazawa, Shinoki Cultural Complex, Kanazawa, Japan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of Glass Kanazawa, Notojima Glass Art Museum, Notojima, Japan
 The Human Figures, Main street arts gallery, NY, USA
 Emerging Artist in Residency Exhibition, Pilchuck

Glass School, WA, USA
 2015 Art in Craft Media 2015, Burchfield Penney Art Center, NY, USA
 Refigured (Invitational), Exhibit-A Gallery, NY, USA
 Structurally Speaking (National juried competition), Main street arts gallery, NY, USA
 Invisibilia, 1975 Gallery, NY, USA
 Harper College National Juried Exhibition, Harper College Gallery, IL, USA
 Small works show (National juried competition), Main street arts gallery, NY, USA
 2014 GAS (Glass Art Society) student exhibition, IL, USA
 8th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Cheong-Ju, Korea
 Convergence (2nd Annual juried graduate student exhibition), University Gallery, NY, USA
 Contemporary 6"x6" Collaborated Exhibition (RIT & China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NY, USA
 GAS (Glass Art Society) international student online exhibition
 The Creative Process: from ideation to realization, Gallery R, NY, USA
 2012 Meta project 2 (ICFF Evite), NY, USA

ARTIST in Residence

2024 Artist in Residence, Wesleyan Potters, Middletown CT, USA
 2023 Invited Visiting Artis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South Korea
 2022 Invited Visiting Artist, Archie Bray Foundation, Helena MT, USA
 2021 Invited Visiting Artist in Residenc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IL, USA
 2016 Artist in Residence (AiR), Corning Museum of Glass, Corning NY, USA
 2015 Emerging Artist in Residence (EAIR), Pilchuck Glass School, Stanwood WA, USA
 2013 - 2016 Artist in Residence, Glass dept,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Rochester NY, USA

ARTIST LECTURE | SYMPOSIUM | DEMONSTRATI

2024 Wesleyan Potters, Middletown CT, USA
 2023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2022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2021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IL, USA
 2019 Glass Works, Canberra ACT, Australia
 2018 Glass Works, Canberra ACT, Australia
 Night Co. Sydney NSW, Australia
 2017 China Academy of Art, Hangzhou, China
 2016 Corning Museum of Glass, Corning NY, USA
 2015 Pilchuck Glass School, Stanwood WA, USA
 2014 Studio 34, Rochester NY, USA

TEACHING EXPERIENCE

2025 Visiting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Semester 1)
 2024 Instructor, Ceramic dept, Sculpture dept, Loomis Chaffee School, CT, USA
 2023 Instructor, Glass Workshop (Session 6), Pilchuck Glass School, WA, USA
 2019 Instructor, Flameworking Workshop, Canberra Glassworks, Canberra ACT, Australia
 2018 Lecturer, Glass dep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ACT, Australia (Glass casting, Semester 1, 2018)
 2016 Instructor, Workshop with Design Team of Samsung Electronic at Corning Museum of Glass, Corning NY, USA
 2013 - 2016 Instructor, Glass sculpture dept, School for American Crafts,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Rochester, NY, USA
 Part-time Instructor, Studio 34, Rochester NY, U.S.A. Flame-working class (Aug 2013 ~)
 2011 - 2013 Teaching Assistant Position, Glass sculpture dept, School for American Crafts, RIT, Rochester, NY, U.S.A.

AWARD AND SCHOLARSHIP

2020 - 2024 Sponsorship by TYM & Korea Mecenat Association, Gallery Sklo, Seoul, Korea
 2020 - 2022 Grant for Exclusive Artist,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Korea
 2019 Selected Award,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of Glass Kanazawa, Japan
 2018 Highly Commended, National Emerging Art Glass Prize, Wagga Wagga Art Gallery, NSW, Australia
 2016 Selected Award,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of Glass Kanazawa, Japan
 Merit Award, Art Kudos: International Juried Art Competition & Exhibition, U.S.A.

2016 Full Scholarship Recipient, Corning Museum of Glass, NY, U.S.A.
 Full Scholarship Recipient, Pilchuck Glass School, WA, U.S.A.
 Honorable Mentions, GAS (Glass Art Society) Conference, IL, U.S.A.
 2015 Finalists in Professional, Niche Award 2015, U.S.A.
 Full Scholarship Recipient, Penland School of Crafts, NC, U.S.A.
 2014 Half Scholarship Recipient, Pilchuck Glass School, WA, U.S.A.
 Honorable Mentions, 8th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South Korea
 Finalists in Student, Niche Award 2014, U.S.A.
 Honorable Mentions, GAS (Glass Art Society) international student online exhibition
 Student Scholarship Recipient, GAS (Glass Art Society) Conference

PUBLICATION

2025 About Glass: Contemporary Sculpture and Installation Art, Hirmer Verlag, Munich
 2024 KIM Namdo_ In a world of masks, for the sake of love, YOUK Sangsoo, Woodplanet, 2024.05.29
 2023 The Shape of Time: Korean Art after 1989, Philadelphia Museum of Art, Yale Press, USA
 Public Art Magazine: No. 202
 2022 Dialogue,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2021 Noblesse Magazine: September Issue
 Revealing the Invisible, Gallery Sklo
 Public Art Magazine: No. 181
 2019 House Organ (Byuck-San Engineering) - Cover page & Interview : 'Vol. 46 Winter
 Neues Glas Magazine - Cover page : No. 4
 Ruminare Magazine - Cover page : Volume 51, 'Consume'
 2016 Art Premium Magazine : Fall 2016 Issue. 'South Korea Under the Spotlight'
 2015 NICHE Magazine : Niche Awards Finalist
 2014 NICHE Magazine : Niche Awards Finalist
 GAS (Glass Art Society) NEWS : Summer 2014 'Identity', by Karen Donnellan
 2013 Democrat and Chronicle News : August 3, 2013, Rochester NY, U.S.A.

COLLECTION

2024 Pureun Savings Bank, Seoul, Korea
 2022 Alexander Tutsek-Stiftung Museum, Munich, Germany
 2021 Hanil Cement, Korea
 2019 Byuck-San Engineering, Seoul, Korea
 Sorak Cultural Center, Sokcho, Korea
 2016 Corning Museum of Glass / Studio, USA
 2010 Haitai Confectionery & Foods Co., Korea
 2008 Agatha, Korea





전시 전경 | View of Exhibition

도록 진행
PUBLICATION

갤러리 스킨로 Gallery Sklo

디자인 DESIGN
사진 PHOTO

graphicat & 도윤정 Do yoonjung

류재권 Ryu Jaekwon

김남두 Kim Namdoo

인쇄 PRINT

비주얼볼 Visual VOM

본 도록의 모든 권리는 갤러리 스킨로에 있으며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without permission from Gallery Sklo.
Copyright © 2025 All rights reserved